

## 다이안지 절

다이안지 절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 중 하나로 일본 건국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 쇼토쿠 태자(574~622년)가 창건했다고 하는 구마고리 도랑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. 쇼토쿠 태자가 사망한 후인 639년에 조메이 천황(593~641년)이 그의 뜻을 이어받아 구다라오데라 절(百濟大寺, 백제대사: 백제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에 세워진 큰 절)을 지었습니다. 그 후 다케치다이시 절(高市大寺: 다케치에 세워진 큰 절)로 바뀌었다가 아스카 지역으로 장소를 옮긴 후에는 다이칸다이시 절(大官大寺: 천황의 큰 절)이 되었습니다. 710년에 수도가 헤이조쿄(현재의 나라시)로 이전된 6년 후에는 그 이름을 다이안지 절로 고쳤습니다. 그리고 난토 7대 사찰 중 하나로써 천황가와 '일본'이라는 국명을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.

나라 시대(710~794년)에 다이안지 절은 현재의 약 25 배에 해당하는 약 24 만 m<sup>2</sup>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, 그 옛 경내 안에는 5 세기에 만들어진 전방후원분인 스기야마 고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다이안지 절의 도랑에서는 일본인 승려 약 900명 외에 중국과 인도 등에서 방문한 승려들도 불교 경전을 공부했습니다. 고고학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, 당시에는 가람 남부에 커다란 탑 2 개가 세워져 있었으며 둘 모두 칠층탑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

다이안지 절은 수세기 동안 화재와 지진을 겪으며 16 세기경에는 폐사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. 그러나 이후에 다시 재건되어, 지금은 8 세기에 제작된 9 구의 귀중한 불상이 모셔져 있으며 그 모두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또한 암의 예방과 치유를 기원하는 장소로도 유명해 1년에 2 회 개최되는 기도회에는 1 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. 이 외에 몇몇 불교 순례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